

# 반도체 온·습도 제어장비 기업 워트,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

윤 노태민 기자 | 승인 2023.04.28 16:27



워트 본사 전경. <사진=워트>

반도체 공정 내 온·습도 제어장비 전문기업 워트가 2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워트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정밀 온도습도 공기조절장치(THC)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칩은 웨이퍼 제조공정 중 온도 및 습도, 먼지 등의 영향으로 불량 발생한다. 회사는 THC를 통한 공정 환경·공조 제어로 칩 제조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THC 장비는 과거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장비다. 워트는 THC를 자체 개발해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의 국소 환경제어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안정적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 워트는 반도체 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28억원,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박승배 워트 대표는 "공모자금을 통해 공정 미세화에 따른 초정밀 환경제어 기술의 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용 차세대 초정밀 향온·향습 제어장비,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향온·향습 장비 등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tmnoh@thelec.kr](mailto:tmnoh@thelec.kr)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태민 기자**